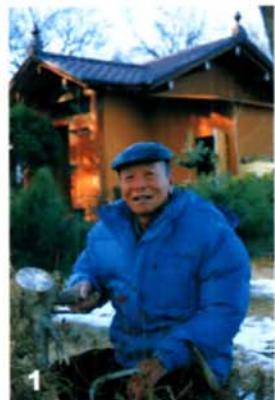


나는 황토집 지어 암극복했다

경찰공무원 출신 방경석 씨, 4년 만에 완치

황토가 사람 몸에 좋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전국에 '황토 바람'이 불고 있다. 황토로 꾸민 병원이 생겨나는가 하면 황토 찜질방이 성황을 이루고, 심지어는 황토방 아파트까지 등장하고 있다. 가족의 건강을 생각해 흙집을 짓는 이들도 많다.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의 방경석 씨는 암과의 투병을 위해 황토집을 지었다. 미송으로 골조를 세운 후 순수 황토벽돌로 벽체를 쌓고 안팎으로 황토 모르타르를 발랐다. 그리고 황토의 효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구들방과 황토 패치카를 들였다. 황토집에서 생활한 지 4년... 방경석 씨는 스스로 놀랄 만큼 건강을 되찾았다.

글 / 사진 · 박창배(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팀장)



1 황토집 짓고 4년 만에 암을 극복한 방경석 씨. 2 집은 천연 소재인 흙과 나무만을 사용해 지었다.







'암(癌)'이라는 '청천벽력'의 진단

김포시청에서 승용차로 10분 거리이면서도 시골 풍경을 고스란히 간직한 양촌면 서현마을 어귀에 이르면 눈에 띠는 집이 있다. 방경석 씨가 암(癌) 투병을 위해 서둘러 마련한 보금자리로 10평 남짓한 황토집이다.

방경석 씨는 경찰생활 35년 만에 58세로 정년퇴임하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 몸이 이상함을 느꼈다고 한다. 조금만 움직여도 쉬 피로해지고, 술을 먹으면 빨리 취할 뿐 아니라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옷이 촉촉이 젖을 정도로 땀을 흘렸다고.

“근무할 때는 몰랐는데 집에서 쉬자 삭신이 쑤시고 아프고 컨디션이 좋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오른쪽 가슴 부분에서 작은 혹까지 잡히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하다 싶어 인근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더니 간단한 수술로 해결할 수 있는 거라며 아무 때나 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냥 지냈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흘렀다. 방경석 씨는 좀 쉬면 팬찮을 것으로 여겼지만 아무리 쉬어도 몸이 영 개운치가 않았고, 하나였던 혹이 두 개로 늘어났다고.

건축정보

위 치 : 김포시 양촌면 유현리
부지면적 : 300평
연 면 적 : 10평(실내 6평, 창고 4평)
건축형태 : 목구조 황토주택
외벽마감 : 황토 모르타르
내벽마감 : 황토 모르타르 + 한지 벽지
지붕마감 : 강판기와
천장마감 : 서까래 노출 + 황토 모르타르
바닥마감 : 황토 모르타르
창 호 재 : 하이사시
난방형태 : 온돌, 벽난로
식수공급 : 지하수
건 축 비 : 평당 250만 원 정도
설계·시공 : 초원황토 031-987-7322,
www.cwhouse.co.kr



3, 4, 6 10평 남짓한 집이지만 조경수와 항아리, 솟대 등을 사용해 정원을 정감있고 소담스럽게 꾸미고, 2평 정도의 정자까지 들어 놓아 결코 작아 보이지 않는다. 5 온돌방에 불을 지피는 방경석 씨의 모습

“아무리 쉬어도 몸이 회복되지가 않았습니다. 또 오른쪽 갈비뼈에서도 혹이 잡히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병원을 가서 진찰을 받자 뼈에 혹이 생긴 것은 심각한 증세라며 큰 병원에 가서 자세하게 검진을 받아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방경석 씨는 조마조마한 가슴을 부여안고 인천시 소재의 종합 병원을 찾아 정밀검진을 한 결과, 간에 종양이 있으니 빨리 수술을 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눈앞에 닥친 현실이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맘으로 국내에서 유명하다는 병원에서 다시 검진을 받기로 했다. 그 결과 간의 종양은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혈액종양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두 번에 걸친 대수술… 꺼져가는 생명의 불씨

방경석 씨는 두 번에 걸쳐 큰 수술을 받아야 했다. 간의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에 이어 갈비뼈 두 대를 잘라 내고 혈액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주변 사람의 마음고생도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의 부인 이주영(64세) 씨는 조마조마한 마음을 달래 느라 하루하루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냈다고.

“가족 모두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가슴속에 서리어 넣었던 희망이 끊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방경석 씨는 병원에 6개월간 입원하고 6개월간 통원 치료를 받았다. 그러는 동안 몸은 야위어 갔고 기력은 쇠해졌다. 주치의는 그에게 공기 좋고 물 맑은 전원에서 생활할 것을 권유했다. 그것이 회복을 도울 거라며…

방경석 씨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의사의 권유를 따르기로 하고 김포시 양촌면에서 전원생활을 하기로 했다. 이곳은 오랫동안 경찰생활을 한 곳이라 낯설지 않을 뿐더러 노후를 위해 마련해 놓은 300평의 부지도 있었기에 집 만 지으면 됐다. 건강을 고려해 황토집을 짓기로 하고, 황토집 전문 시공사를 찾던 중 마음에 쏙 드는 집을 보았다.



5



TIP

건축 자재로 황토가 갖고 있는 장점

사람과 가장 가까운 건축 소재는 '흙'과 '나무'이다. 전원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흙 중 건축자재로 쓰일 만한 질 좋고 건강한 상태의 흙은 단연 '황토'이다. 황토 1그램에는 2억 마리의 인체에 유익한 미생물이 있는데, 이것은 황토가 살아 숨쉬는 물질임을 말한다. 생물이 숨을 쉬듯 황토도 생물처럼 숨을 쉰다.

건축 자재로써 황토의 큰 장점은 원적외선을 다량 발산한다는 점이다. 황토에서 파장되는 원적외선은 현대 의학에서도 생리작용을 활성화하고 각종 질병에 치유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병원에서도 이 원적외선을 이용해 많은 환자를 치료하고 있다. ▲노화방지·혈액순환 촉진·스트레스 해소·피부미용·신경통·요통·만성피로회복에 아주 좋다. ▲체온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 성장을 촉진한다. 각종 노폐물을 분해해 대사기능을 촉진하고 영양 밸런스를 유지시키는 작용을 한다. ▲인체 내 모세혈관이 확장되고 신진대사를 촉진해 숙면을 도와준다. ▲근육통의 통증을 완화시켜 주고 혈액순환을 왕성하게 해 성인병을 예방한다. 황토가 가지고 있는 다른 장점은 높은 단열성이다. 황토는 바깥 공기의 뜨거움과 차가움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냉난방 효과는 물론 주택 내부의 습도 조절 기능을 한다. 그리고 미립자를 통한 통풍 작용으로 주택 내부에 쾌적한 공기 밀도를 유지시켜 준다.



7



8

7,8 실내는 6평 원룸으로 꾸몄다. 천장은 서까래를 노출한 빗천장에 황토 모르타르로 마감하고, 벽은 순수 황토 모르타르에 한자를 발랐다.

“집을 거창하게 지을 수는 없었습니다. 경제 형편도 여의치 않았지만 서둘러 지어야 했으니까요. 인근에서 황토 집 전문 시공사를 물색하던 중 눈에 띠는 집이 있었습니다. 10평 남짓한 작은 집이었는데 저 정도면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 길로 그 집을 지은 시공사를 찾아가 사정을 얘기하며 다짜고짜 집을 지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초원황토의 김용완 사장은 방경석 씨의 얼굴을 보자 거절할 수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평당 230만 원에 황토집을 지어 주기로 하고 바로 공사에 착수했다. 2001년 11월 말에 시작한 공사는 이듬해 2월 초에 완공되었다.

김포 양촌 10평 목구조 황토주택

집은 천연 소재인 나무와 흙만을 사용해 짓고 ‘푸른 산에서 살고 싶다’는 건축주의 마음을 담아 ‘벽산정(碧山亭)’이라는 당호를 붙였다. 미송으로 골조를 세우고 순수 황토벽돌로 벽체를 쌓았다. 그리고 외벽은 구운 황토가루에 조개껍질 가루와 모래, 시멘트를 섞은 황토 모르타르로 미장하고, 내벽은 순수 황토 모르타르로 미장한 후 한지를 발랐다.

9 육실. 10 황토의 효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황토 패치카를 들이고, 바닥은 황토 구들장을 깔았다. 11 방경석 씨는 오전 6시에 일어나 가볍게 산책을 한 후 소일거리로 농사와 가축을 돌보며 하루를 보낸다.



바닥은 황토 구들장을 깔고 생황토로 편평하게 다진 후 황토 모르타르로 2센티미터 미장 마감했다. 구들장은 구운 황토에 조개껍질 가루를 섞고 철근(8~10mm)을 심어 초원황토에서 제작한 제품을 사용했다. 지붕은 서까래를 걸치고 샌드위치 패널(100t)을 깔고 방수 쉬트를 덮고 방음과 단열을 위해 보온재를 덧씌운 다음 강판기와를 얹었다.

내부는 원룸형으로 실내 6평, 창고 4평을 합쳐 10평에 이른다. 황토의 효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온돌방을 들이고 순수 황토 모르타르로 천장을 마감했으며 황토 패치카를 설치했다. 황토집 짓고 전원생활을 한 지 4년. 방경석 씨는 암 환자였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건강해 보였다. 그 또한 윗옷을 젖혀 가슴과 배에 남아 있는 수술 흔적을 보이며 이렇게 큰 수술을 받고도 살아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단다. 아주영 씨는 그 동안의 마음 고생을 털어놓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사실 건강을 회복할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대부분 어려울 거라고 했고요. 그런데 하늘이 도운 건지 아니면 황토집 덕을 본 건지 하여튼 건강을 회복해서 행복할 따름입니다.”

방경석 씨는 닭소리를 들으며 오전 6시에 일어나서 주변을 산책하며 가볍게 몸을 풀고, 가축을 돌보고 소일거리로 농사일을 하며 하루를 보낸다. 약수(옻우물)를 마시고 식단은 손수 농사지은 무공해 채소를 먹는다. 지난 연말에는 부부가 농사지은 것들로 김장을 담가 자녀들에게 보내기까지 했다.

방경석 씨는 앞으로 새로 태어난 기분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 거란다. 아울러 저렴하게 황토집을 지어 준 초원황토의 김용완 사장에게 새삼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고.

